

위대한 개츠비

문법 노트

왜 작가가 이 구조를 선택했는가

9챕터 · 45 포인트

I1I12III3 × Claude Sonnet

제 1 장

1. 시제 (Complex Tense)

Tom Buchanan, who **had been hovering** restlessly about the room, stopped and rested his hand on my shoulder.

방 안을 안절부절못하며 서성이던 톰 뷰캐넌이 걸음을 멈추고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과거완료진행형(had been + ~ing)은 **과거의 어떤 시점까지 계속되던 동작**을 나타냅니다.

—[had been hovering]—▶ stopped —▶ (지금)

계속 서성이던 상태

멈춘 순간

한국어 "서성이던"의 "-던"이 바로 이 뉘앙스입니다. "서성였다"(단순과거)와 "서성이던"(과거완료진행)의 차이 — 후자는 그 동작이 **배경**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Fitzgerald가 **had been hovering** 을 쓴 이유: Tom의 불안한 상태가 **stopped** 이전부터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단순히 "움직였다"가 아니라 "계속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심리 상태를 시제로 전달합니다.

2.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Most of the confidences were unsought—frequently I have feigned sleep, preoccupation, or a hostile levity when I realized by some unmistakable sign that an intimate revelation was quivering on the horizon; for the intimate revelations of young men, or at least the terms in which they express them, are usually plagiaristic and marred by obvious suppressions.

대부분의 고백은 내가 원하지 않은 것들이었다—친밀한 폭로가 수평선에서 떨리고 있다는 확실한 징조를 알아챘을 때, 나는 종종 잠든 척, 딴 생각에 빠진 척, 혹은 적대적인 경박함을 가장했다. 젊은 남자들의 친밀한 폭로는, 적어도 그들이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대개 표절에 가깝고 명백한 억압으로 인해 흠이 있기 때문이다.

복합 주어에서 동사 일치는 **핵심 명사**를 따릅니다.

Most of the confidences were...

주어: Most (대부분) + of the confidences (복수)

동사: were (복수 일치)

한국어에서는 "대부분의 고백들은"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복수 개념이 느껴집니다. 영어는 문법적으로 **강제**합니다 — **Most** 가 단수처럼 보여도, **of the confidences** 의 **confidences** 가 복수이므로 **were** 를 써야 합니다.

만약 **Most of the information was...** 라고 했다면? **information** 이 불가산 명사(단수 취급)이므로 **was** 가 됩니다. 영어는 이런 세부사항을 동사 형태로 **드러내도록** 강제합니다.

3. 관계사 (Relative Clause)

And so it happened that on a warm windy evening I drove over to East Egg to see two old friends **whom I scarcely knew**

at all.

그래서 바람이 부는 따뜻한 저녁, 나는 거의 알지도 못하는 두 옛 친구를 만나러 이스트에그로 차를 몰고 갔다.

관계대명사 **whom** 은 **목적격**입니다. 여기서 **knew** 의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I drove to see two friends whom I scarcely knew

↑ ↑

선행사 목적어 (knew의 대상)

한국어로는 "거의 알지도 못하는 친구들"이 되는데, "~는"이 관계절 표시입니다. 영어는 **who** (주격)와 **whom** (목적격)을 구분합니다.

현대 영어에서는 **whom** 대신 **who** 를 쓰는 경우가 많지만, Fitzgerald는 1920년대 문체를 유지합니다. **whom** 을 쓰면 **격식 있는 문체** 가 되고, 화자 Nick의 교육받은 배경을 암시합니다. 문법이 캐릭터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4.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Most of the confidences were unsought—frequently I have feigned sleep, preoccupation, or a hostile levity when I realized by some unmistakable sign that an intimate revelation was quivering on the horizon; **for the intimate revelations of young men, or at least the terms in which they express them**, are usually plagiaristic and marred by obvious suppressions.

대부분의 고백은 내가 원하지 않은 것들이었다—친밀한 폭로가 수평선에서 떨리고 있다는 확실한 징조를 알아챘을 때, 나는 종종 잠든 척, 딴 생각에 빠진 척, 혹은 적대적인 경박함을 가장했다. 젊은 남자들의 친밀한 폭로는, 적어도 그들이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대개 표절에 가깝고 명백한 억압으로 인해 흠이 있기 때문이다.

병렬구조에서 **or at least** 는 **범위를 좁혀가는** 표현입니다.

the intimate revelations of young men,

or at least the terms in which they express them

↑

범위를 좁힘 (전체 → 부분)

한국어로는 "젊은 남자들의 친밀한 폭로는, 적어도 그들이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이 됩니다. "적어도"가 핵심 — 전체를 비판하기 어려우면 **일부라도** 비판하겠다는 뉘앙스입니다.

Fitzgerald가 이 구조를 쓴 이유: Nick이 **조심스럽게**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젊은이들의 고백 자체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그 **표현 방식**만큼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중한 성격의 화자를 드러내는 문체적 장치입니다.

5. 가정법 (Subjunctive)

If personality is an unbroken series of successful gestures, then there was something gorgeous about him, some heightened sensitivity to the promises of life, **as if he were related to one of those intricate machines that register earthquakes ten thousand miles away.**

인격이란 것이 성공적인 몸짓들의 끊어지지 않는 연속이라면, 그에게는 뭔가 화려한 면이 있었다. 삶의 약속들에 대한 고조된 감수성이 있었는데, 마치 만 마일 떨어진 곳의 지진을 감지하는 정교한 기계들 중 하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다.

as if he were 에서 were 는 **가정법 과거**입니다. 현실이 아닌 상황을 나타냅니다.

as if he were related to... (가정법)

vs.

as if he was related to... (직설법)

한국어로는 둘 다 "마치 ~인 것 같았다"가 되지만, 영어는 **현실성의 정도**를 문법으로 구분합니다. were 를 쓰면 "실제로는 아니지만"이라는 뉘앙스가 강해집니다.

Fitzgerald가 were 를 선택한 이유: Gatsby가 실제로 지진 감지기는 아니라는 것을 **문법적으로** 명확히 하면서도, 그만큼 예민하다는 **비유의 강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가정법이 만드는 거리감이 오히려 비유를 더 생생하게 만듭니다.

제 2 장

1.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Occasionally a **line of grey cars crawls** along an invisible track, gives out a ghastly creak, and comes to rest, and immediately the ash-grey men swarm up with leaden spades and stir up an impenetrable cloud, which screens their obscure operations from your sight.

때때로 회색 화차들이 한 줄로 보이지 않는 선로를 따라 기어가다가 섬뜩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멈춰 선다. 그러면 즉시 재빛 회색 사내들이 납덩이 같은 삽을 들고 우르르 몰려와 뚫을 수 없는 먼지 구름을 일으켜, 그들의 모호한 작업을 시야에서 가려버린다.

집합명사의 단수 동사: **a line of grey cars crawls**

a line (단수 주어) + of grey cars (전치사구) + crawls (단수 동사)

한국어에서는 "화차들이 기어간다"로 복수 개념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영어는 문법적 주어(a line)에 동사를 맞춥니다. cars가 아니라 line이 주어이므로 crawls(단수)를 씁니다.

Fitzgerald가 a line을 선택한 이유는 — 개별 화차가 아니라 **하나의 선**으로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문법이 화자의 시점을 반영합니다: 멀리서 보면 여러 화차도 하나의 선처럼 보입니다.

2.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One of the three shops it contained **was for rent and another was an all-night restaurant, approached by a trail of ashes**; the third was a garage—Repairs.

그곳에 있는 세 개의 상점 중 하나는 임대용이었고, 다른 하나는 재 더미 사이의 오솔길을 따라 들어가는 24시간 식당이었다. 세 번째는 정비소였다—수리업.

병렬구조의 생략: **was for rent and another was...**

One... was for rent

and

another was an all-night restaurant

한국어에서는 "하나의 임대용이었고, 다른 하나는 식당이었다"로 자연스럽게 반복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was를 반복해서 리듬을 만듭니다.

하지만 세 번째에서 패턴이 깨집니다: **the third was a garage—Repairs.** 짧은 대사와 단어 하나로 끝내면서, 앞의 긴 설명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 **비대칭**이 황폐한 풍경의 단조로움을 표현합니다.

3. 가정법 (Subjunctive)

She smiled slowly and, walking through her husband **as if he were a ghost**, shook hands with Tom, looking him flush in the eye.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마치 유령인 양 지나쳐서는 통과 악수를 나누었는데,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가정법 과거: `as if he were a ghost`

`as if + he were` (가정법 과거)

실제: `he was` (직설법 과거)

한국어 "마치 유령인 양"에는 비현실성이 자연스럽게 담겨 있습니다. 영어는 `were`(가정법)로 이를 문법화합니다. `was`를 썼다면 "실제로 유령 같았다"는 뜻이고, `were`는 "유령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Myrtle이 남편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나간다는 것 — 이 장면의 핵심은 그녀가 남편을 얼마나 무시하는지입니다. 가정법이 그 무시의 정도를 문법으로 표현합니다.

4. 수동태 (Passive Voice)

Her eyebrows **had been plucked** and then drawn on again at a more rakish angle, but the efforts of nature toward the restoration of the old alignment gave a blurred air to her face.

눈썹은 뽑아낸 다음 좀 더 멋스러운 각도로 다시 그려넣었지만, 원래 모양을 되찾으려는 자연의 노력 때문에 얼굴이 흐릿한 느낌을 주었다.

과거완료 수동태: `had been plucked`

`had been + plucked` (과거완료 수동태)

그 후: `drawn on again` (단순과거 수동태)

한국어에서는 "뽑아낸 다음 그려넣었다"로 순서만 표현합니다. 영어는 시제로 **시간의 층위**를 만듭니다:

1. `had been plucked` — 더 먼 과거 (먼저 뽑았다)
2. `drawn on again` — 상대적으로 가까운 과거 (그 다음 그렸다)

Fitzgerald가 과거완료를 쓴 이유는 — Myrtle의 인위적인 아름다움이 **여러 단계**를 거쳐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5. 관계사 (Relative Clause)

This is a valley of ashes—a fantastic farm where ashes grow like wheat into ridges and hills and grotesque gardens; **where ashes take the forms of houses and chimneys and rising smoke and, finally, with a transcendent effort, of ash-grey men, who move dimly and already crumbling through the powdery air.**

이곳이 바로 잿빛 골짜기다—재가 밀처럼 자라나 능선과 언덕과 기괴한 정원을 이루는 환상적인 농장이며, 재가 집과 굴뚝과 피어오르는 연기의 형태를 취하고, 마침내 초월적인 노력으로 재빛 회색 사내들의 모습까지 만들어내는 곳이다. 그들은 가루 같은 공기 속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며 이미 부서져가고 있다.

where절의 연쇄: 장소를 넘어선 존재론적 공간

a fantastic farm where ashes grow...

where ashes take the forms...

who move dimly...

한국어에서는 "~하는 곳"으로 번역되지만, 영어의 **where** 는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 **where** 절들은 **존재 방식**을 정의합니다.

첫 번째 **where**: 재가 밀처럼 자란다 (불가능한 일)

두 번째 **where**: 재가 사람 형태를 취한다 (더 불가능한 일)

Fitzgerald는 **where** 를 반복해서 이 공간이 **현실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법적으로는 관계부사절이지만, 실제로는 초현실적 세계의 규칙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 3 장

1. 가정법 (Subjunctive)

There was a machine in the kitchen **which could extract the juice of two hundred oranges in half an hour if a little button was pressed two hundred times by a butler's thumb.**

부엌에는 집사의 엄지손가락으로 작은 버튼을 이백 번 누르면 삼십 분 안에 오렌지 이백 개의 즙을 짜낼 수 있는 기계가 있었다.

if a little button was pressed two hundred times

이것은 가정법이 아니라 **단순한 조건문**입니다. **if + 과거형**이지만 "만약 ~한다면"의 뜻입니다. 한국어 "~하면"과 같습니다.

영어에서 **if + 과거형**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 가정법: "만약 ~했다면" (현실과 반대)
- 조건문: "만약 ~한다면" (가능한 상황)

여기서는 기계 작동 조건을 설명하므로 **조건문**입니다. **could extract**도 "할 수 있었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어는 맥락으로 구분하지만, 영어는 문법적으로 애매합니다.

2.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In the main hall a bar with a real brass rail was set up, and stocked with gins and liquors and with cordials so long forgotten that **most of his female guests were** too young to know one from another.

메인 홀에는 진짜 황동 난간이 달린 바가 설치되어 있었고, 진과 리큐어, 그리고 너무 오래전에 잊혀진 코디얼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그의 여성 손님들 대부분은 너무 어려서 하나하나를 구별할 줄도 몰랐다.

most of his female guests were too young

most of + 복수명사는 **복수 동사**를 씁니다. 한국어 "대부분은"과 달리, 영어는 수 일치를 강제합니다.

- **most guests were** ✓
- **most of the guests were** ✓
- **most of his guests were** ✓

most of가 있어도 뒤의 명사(**guests**)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입니다. 한국어 "대부분은 어렸다"에서는 단수/복수 구분이 없지만, 영어는 문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관계사 (Relative Clause)

As soon as I arrived I made an attempt to find my host, but the two or three people **of whom I asked his whereabouts stared at me in such an amazed way, and denied so vehemently any knowledge of his movements, that I slunk off in the direction of the cocktail table—the only place in the garden where a single man could linger without looking purposeless and alone.**

도착하자마자 나는 주인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의 행방을 물어본 두세 사람이 너무나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며 그의 움직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격렬하게 부인하는 바람에, 나는 칵테일 테이블 쪽으로 슬금슬금 물러났다. 정원에서 혼자 있는 남자가 목적 없고 외로

위 보이지 않으면서 머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the two or three people of whom I asked his whereabouts

whom 은 전치사 of 뒤에 오는 목적격입니다. 구조를 풀면:

I asked [his whereabouts] of [the people]

→ the people of whom I asked his whereabouts

한국어 "~에게 물어본 사람들"을 영어로 하면 **people of whom I asked** 또는 **people I asked** 입니다. 격식체에서는 **whom** 을 쓰고, 일상어에서는 생략하거나 **who** 를 씁니다. Fitzgerald는 1920년대 격식체를 사용합니다.

4.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In the main hall a bar with a real brass rail was set up, and **stocked with gins and liquors and with cordials** so long forgotten that most of his female guests were too young to know one from another.

메인 홀에는 진짜 황동 난간이 달린 바가 설치되어 있었고, 진과 리큐어, 그리고 너무 오래전에 잊혀진 코디얼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그의 여성 손님들 대부분은 너무 어려서 하나하나를 구별할 줄도 몰랐다.

stocked with gins and liquors and with cordials

with X and Y and with Z 구조입니다. with 를 반복해서 각 항목을 강조합니다:

stocked with [gins and liquors] and with [cordials]

한국어에서는 "진과 리큐어, 그리고 코디얼로"라고 자연스럽게 번역되지만, 영어 원문의 with 반복은 리듬감을 만듭니다. 단순히 **stocked with gins, liquors, and cordials** 라고 쓸 수도 있지만, Fitzgerald는 with 를 반복해서 풍성함을 강조합니다.

5. 수동태 (Passive Voice)

I believe that on the first night I went to Gatsby's house I was one of the few guests who **had actually been invited**.

개츠비의 집에 처음 간 그날 밤, 나는 실제로 초대받은 몇 안 되는 손님 중 하나였다고 생각한다.

had actually been invited

과거완료 수동태입니다. 구조: had + been + pp

초대받은 시점 → 파티에 간 시점 → 지금

(had been invited) (went) (believe)

한국어 "초대받은"은 시제가 모호하지만, 영어는 **시간의 층위**를 명확히 합니다. **was invited** (단순과거 수동)와 **had been invited** (과거완료 수동)의 차이는 — 파티 가기 **이전에** 초대받았다는 것을 문법으로 못박는 것입니다.

제 4 장

1. 가정법 (Subjunctive)

I have forgotten their names—Jaqueline, I think, or else Consuela, or Gloria or Judy or June, and their last names were either the melodious names of flowers and months or the sterner ones of the great American capitalists whose cousins, if pressed, they would confess themselves to be.

그들의 이름은 잊어버렸다—재클린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콘수엘라나 글로리아, 주디나 준이었고, 성은 꽃이나 달의 선율적인 이름이거나 아니면 미국의 거대한 자본가들의 더 엄숙한 이름이었는데, 다그치면 자신들이 그들의 사촌이라고 고백하곤 했다.

if pressed, they would confess themselves to be

이것은 **가정법 현재**입니다. `if pressed` 는 `if they were pressed` 의 축약형 — "만약 다그친다면"이라는 가정 상황을 설정합니다.

한국어에서는 "다그치면 ~하곤 했다"로 번역되지만, 원문의 뉘앙스는 다릅니다. `would confess` 는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이 아니라 **습관적 행동**을 나타냅니다. "다그치기만 하면 언제나 고백하곤 했다"는 뜻입니다.

Maugham이 이 구조를 쓴 이유: 이 여성들의 **허영심**을 조롱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소에는 숨기지만, 살짝만 압박하면 자랑하러 든다는 인간의 속성을 문법으로 포착한 것입니다.

2. 관계사 (Relative Clause)

From East Egg, then, came the Chester Beckers and the Leeches, and a man named Bunsen, whom I knew at Yale, and Doctor Webster Civet, who was drowned last summer up in Maine.

이스트에그에서는 체스터 베커 부부와 리치 부부, 그리고 내가 예일에서 알던 번슨이라는 남자, 작년 여름 메인에서 익사한 웹스터 시벳 박사가 왔다.

a man named Bunsen, whom I knew at Yale

`whom` 은 관계대명사 `who` 의 목적격입니다. `I knew him at Yale` 에서 `him` 이 `whom` 으로 바뀐 것입니다.

한국어에는 주격/목적격 구분이 관계절에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일에서 알던 남자"에서 "남자"가 목적어라는 것을 문법적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영어는 다릅니다. `who knew me` (주격)와 `whom I knew` (목적격)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Maugham이 `whom` 을 쓴 순간, 화자가 Bunsen을 **아는 쪽**이라는 관계가 문법에 박힙니다. 사회적 위계까지 암시하는 선택입니다.

3.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He reached in his pocket, and a piece of metal, slung on a ribbon, fell into my palm.

그가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리본에 매달린 금속 조각 하나가 내 손바닥에 떨어졌다.

a piece of metal, slung on a ribbon, fell into my palm

주어는 `a piece of metal` 이고, `slung on a ribbon` 은 **과거분사구**로 주어 를 수식합니다. 동사는 `fell` 입니다.

한국어에서는 "리본에 매달린 금속 조각이"처럼 관형어가 앞에서 수식합니다. 영어는 **후치수식** — 주어 뒤에 설명을 붙입니다.

주어: `a piece of metal`

수식: `, slung on a ribbon,` ← 삽입된 설명

동사: `fell`

Maugham이 이 구조를 선택한 이유: `a piece of metal` 만 먼저 제시하고, 그것이 "리본에 매달린" 것이라는 정보를 **나중에** 추가합니다. 독자가 금속 조각을 먼저 상상하고, 그 다음에 리본을 보게 만드는 **시각적 순서**를 따릅니다.

4. 시제 (Complex Tense)

I **hadn't been looking** at them, but I did now.

나는 그것들을 보고 있지 않았지만, 이제 보게 되었다.

I hadn't been looking at them

이것은 **과거완료진행**입니다. `had been + -ing` 의 부정형입니다.

한국어 번역 "보고 있지 않았다"는 단순한 부정이지만, 원문은 더 복잡합니다. 과거완료진행은 **과거의 어떤 시점까지 계속되던 행동**을 나타냅니다.

—[hadn't been looking]—▶ but I did now

과거부터 계속 안 봤음

지금 봤음

I wasn't looking (단순과거진행)과 다릅니다. 과거완료진행은 "그때까지 쪽 안 보고 있었다"는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Maugham이 이 시제를 쓴 이유: 화자가 **의도적으로**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는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5. 도치 (Inversion)

From East Egg, **then, came the Chester Beckers** and the Leeches, and a man named Bunsen, whom I knew at Yale, and Doctor Webster Civet, who was drowned last summer up in Maine.

이스트에그에서는 체스터 베커 부부와 리치 부부, 그리고 내가 예일에서 알던 번슨이라는 남자, 작년 여름 메인에서 익사한 웹스터 시벳 박사가 왔다.

From East Egg, then, came the Chester Beckers

이것은 **도치구문**입니다. 정상 어순은 `The Chester Beckers came from East Egg`이지만, 장소구 `From East Egg` 를 문두로 끌어내고 주어와 동사를 뒤바꿨습니다.

한국어에서는 "이스트에그에서는"처럼 조사 "에서는"으로 출발점을 강조합니다. 영어는 **어순 변화**로 같은 효과를 냅니다.

정상: The Chester Beckers came from East Egg

도치: From East Egg came the Chester Beckers

Maugham이 도치를 쓴 이유: **장소별 분류**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문장은 파티 참석자들을 지역별로 나열하는 맥락에서 나옵니다. **From East Egg** 를 앞세워서 "이스트에그 출신들은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카테고리화**를 선명하게 만듭니다.

제 5 장

1.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Gatsby looked with vacant eyes through a copy of Clay's Economics, starting at the Finnish tread that shook the kitchen floor, and peering towards the bleared windows from time to time as if a **series of invisible but alarming happenings were taking** place outside.

개츠비는 클레이 경제학 책을 멍하니 들여다보며, 부엌 바닥을 흔드는 핀란드산 발걸음 소리에 놀라고는, 때때로 흐릿한 창문 쪽을 힐끗 보았는데 마치 밖에서 보이지 않지만 불길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a series of happenings were taking place

↑(단수)

↑(복수동사)

영어에서는 **a series of + 복수명사** 가 나오면 동사가 헛갈립니다. **series** 는 단수인데 **happenings** 는 복수니까요. 여기서 Fitzgerald는 **were** 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어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로 자연스럽게 번역되지만, 영어는 **문법적 선택**을 강요합니다. **was** 를 쓰면 "하나의 연속"에 초점이 가고, **were** 를 쓰면 "여러 개의 사건들"에 초점이 갑니다.

Fitzgerald가 **were** 를 선택한 이유: 개츠비가 느끼는 것은 하나의 큰 사건이 아니라 **산발적이고 불길한 여러 사건들**입니다. 문법이 그의 불안한 심리를 반영합니다.

2.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Two **o'clock and the whole corner of the peninsula** was blazing with light, which fell unreal on the shrubbery and made thin elongating glints upon the roadside wires.

두 시가 되자 반도의 모퉁이 전체가 빛으로 타오르고 있었는데, 그 빛은 관목들 위로 비현실적으로 내려앉아 길가의 전선들에 가늘고 긴 반짝임을 만들어냈다.

Two o'clock and the whole corner... was blazing

↑(시간)

and

↑(장소)

↑(동사)

이것은 특이한 구조입니다. 보통은 "At two o'clock, the corner was blazing"이라고 쓸 텐데, Fitzgerald는 **and** 로 시간과 장소를 **병렬**로 연결했습니다.

한국어에서는 "두 시가 되자"로 자연스럽게 처리되지만, 영어의 이 구조는 **영화적**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동시에 화면에 들어오는 느낌 — "두 시, 그리고 반도 모퉁이 전체가..."

and 가 만드는 효과: 시간의 도래와 빛의 폭발이 **하나의 사건**처럼 느껴집니다. 시간이 공간을 점화시키는 것 같은 착각.

3. 가정법 (Subjunctive)

Only wind in the trees, which blew the wires and made the lights go off and on again **as if the house had winked into the darkness**.

나무들 사이로 부는 바람만이 전선을 흔들며 불빛들을 꺾다 꺾다 하게 만들 뿐이었는데, 마치 집이 어둠 속으로 윙크를 하는 것 같았다.

as if the house had winked

↑(과거완료)

as if 다음에 과거완료가 오면 "현재 상황에 대한 비현실적 비교"입니다. 실제로는 집이 윙크할 수 없죠.

한국어의 "마치 ~하는 것 같았다"는 가정의 뉘앙스가 약합니다. 하지만 영어 as if + 과거완료 는 문법적으로 비현실을 표시합니다. 시제를 한 단계 뒤로 밀어서 "이것은 실체가 아니다"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Fitzgerald의 선택: 단순히 "like the house winked"라고 하지 않고 had winked 를 쓴 이유는, 이 순간의 환상적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츠비의 집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

4. 분사구문 (Participial Construction)

But, because the offer was obviously and tactlessly **for a service to be rendered**, I had no choice except to cut him off there.

하지만 그 제안이 명백히 그리고 무례하게도 어떤 봉사를 해달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서 그를 말리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a service to be rendered

↑(수동 부정사)

to be + pp 는 "앞으로 ~될 것"을 뜻합니다. to be rendered 는 "제공될 봉사" —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수동적 행위입니다.

한국어에서는 "어떤 봉사를 해달라는 것"으로 번역되어 능동적으로 들리지만, 영어 원문은 **화자의 관점**에서 수동입니다. 화자가 봉사를 받는 입장이라는 뜻이죠.

이 구조가 만드는 뉘앙스: 단순히 "help"나 "favor"라고 하지 않고 service to be rendered 라고 한 이유는 **격식성과 거리감**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계약서 같은 느낌.

5. 시제 (Complex Tense)

He **hadn't once ceased** looking at Daisy, and I think he revalued everything in his house according to the measure of response it drew from her well-loved eyes.

그는 한순간도 데이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고, 그녀의 사랑스러운 눈동자에서 나타나는 반응의 정도에 따라 집 안의 모든 것을 다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았다.

hadn't once ceased looking

↑(부정) ↑(강조) ↑(계속)

hadn't once ceased 는 삼중 구조입니다. not + once + cease —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는 뜻이지만, 단순히 "계속 봤다"보다 훨씬 강합니다.

한국어로는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않았다"로 번역되는데, 이것도 강한 표현이지만 영어만큼 **문법적으로 겹겹이 쌓인** 강조는 아닙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Fitzgerald는 개츠비의 시선이 얼마나 **집요했는지**를 보여주려 합니다. **looked at** 라고 하면 평범하지만, **hadn't once ceased looking**은 거의 **강박적인** 느낌을 줍니다.

제 6 장

1. 시제 (Complex Tense)

It was James Gatz who **had been loafing** along the beach that afternoon in a torn green jersey and a pair of canvas pants, but it was already Jay Gatsby who borrowed a rowboat, pulled out to the Tuolomee, and informed Cody that a wind might catch him and break him up in half an hour.

그날 오후 해변을 따라 어슬렁거리며 찢어진 초록 저지와 캔버스 바지를 입고 있던 것은 제임스 개츠였지만, 노젓는 배를 빌려 툴로미 호까지 나가서 바람이 불면 배가 반 시간 안에 부서질 수도 있다고 코디에게 알린 것은 이미 제이 개츠비였다.

Fitzgerald가 **had been loafing** 을 쓴 이유는 **연속성**입니다. 단순과거 **was loafing** 과 비교해보세요:

was loafing - 그 순간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had been loafing - (그 이전부터) 계속 어슬렁거려왔다

한국어에서는 "어슬렁거리며 있던"으로 번역되지만, 영어의 과거완료진행은 더 정확합니다. James Gatz는 그날 오후 **이전부터** 계속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장 후반부를 보세요 — **borrowed**, **pulled out**, **informed** 는 모두 단순과거입니다. Fitzgerald의 의도: Gatz는 **지속적인 상태**였지만, Gatsby는 **결정적 행동**을 했다. 시제가 인물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2.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Contemporary **legends such as the "underground pipeline to Canada" attached** themselves to him, and there was one persistent story that he didn't live in a house at all, but in a boat that looked like a house and was moved secretly up and down the Long Island shore.

"캐나다로 통하는 지하 파이프라인" 같은 당대의 전설들이 그에게 붙어다녔고, 그가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집처럼 생긴 배에 살면서 롱아일랜드 해안을 따라 은밀히 오가고 있다는 끈질긴 소문도 하나 있었다.

복수 주어 **legends** 가 단수 동사 **attached** 와 어떻게 일치하는지 보세요:

Contemporary legends such as the "underground pipeline to Canada" attached themselves

여기서 핵심은 **such as** 구문입니다. 문법적으로는 **legends** 가 주어이므로 **attached** 가 맞습니다.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각각의 전설이 개별적으로 "붙어다녔다"는 뜻입니다.

한국어에서는 "전설들이 붙어다녔다"로 자연스럽게 번역되지만, 영어에서는 **themselves** 가 중요합니다 — 각 전설이 스스로 Gatsby에게 달라붙었다는 능동적 이미지를 만듭니다. 전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3.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This was his day **off and with laudable initiative he had hurried out "to see."**

그날은 그의 휴무일이었고, 칭찬할 만한 적극성으로 "확인하러" 서둘러 나온 것이었다.

이 문장에서 **and** 가 연결하는 것을 보세요:

This was his day off and [with laudable initiative] he had hurried out

첫 번째 절: This was his day off (상태)

두 번째 절: he had hurried out (행동)

그런데 with laudable initiative 가 중간에 끼어있습니다. 이것은 **부사구**로, 동사 had hurried 를 수식합니다. 한국어에서는 "칭찬할 만한 적극성으로"가 자연스럽게, 영어에서는 이 부사구가 절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Fitzgerald의 의도: 평범한 병렬구조(off and hurried)를 피하고, 기자의 **동기**를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laudable initiative" — 직업정신입니다.

4. 가정법 (Subjunctive)

One of them was that, after she was free, they were to go back to Louisville and be married from her house—just **as if it were five years ago**.

그 조치 중 하나는 데이지가 자유로워진 후 루이빌로 돌아가 그녀의 집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었다—마치 5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as if it were** 에서 **were** 을 주목하세요. 주어가 **it** (단수)인데 왜 **were** 일까요?

as if it were five years ago (가정법)

as if it was five years ago (직설법)

이것이 **가정법 과거**입니다. 한국어에서는 "마치 ~인 것처럼"으로 번역되어 차이가 안 보이지만, 영어에서는 중요합니다:

- **were** = 완전히 비현실적인 상황
- **was** = 가능성이 있는 상황

Gatsby의 꿈은 시간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Fitzgerald가 **were** 을 쓴 이유는 —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문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시제가 현실감을 전달합니다.

5. 수동태 (Passive Voice)

His life **had been confused** and disordered since then, but if he could once return to a certain starting place and go over it all slowly, he could find out what that thing was ...

그때 이후로 그의 삶은 혼란스럽고 무질서했지만, 만약 그가 한 번이라도 어떤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천천히 다시 살펴볼 수 있다면, 그 무엇이었는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었다...

had been confused 는 과거완료 수동태입니다. 능동태로 바꾸면:

Something had confused his life (능동)

His life had been confused (수동)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위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누가 Gatsby의 삶을 혼란스럽게 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어에서도 "혼란스럽고 무질서했다"로 번역되어 같은 효과를 냅니다.

Fitzgerald의 선택: Gatsby 자신이 혼란을 만들었는지, 외부 상황이 그랬는지 모호하게 둡니다. 과거완료(had been)는 이 혼란이 **오래전부터** 계속되어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더 절망적입니다.

제 7 장

1. 시제 (Complex Tense)

Someone who **had been driving** a little behind us confirmed this, and the policeman turned away.

우리 뒤에서 조금 떨어져 운전하던 누군가가 이를 확인해 주었고, 경찰관은 돌아섰다.

had been driving ← 과거완료진행형

confirmed ← 단순과거

과거완료진행형(had been + ~ing)은 "과거의 어떤 시점까지 계속 진행되던 일"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사고가 일어난 순간까지 "계속 운전하고 있던" 상태를 표현합니다.

한국어 "운전하던"도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하지만 영어는 시제로 이 "계속성"을 문법에 박아넣습니다. **drove** (운전했다)와 **had been driving** (운전하고 있던 중이었다)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작가가 이 시제를 선택한 이유: 목격자가 "그 순간까지 쪽 운전하고 있던" 사람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순간적 관찰이 아니라 **지속적 관찰**이었다는 신빙성을 시제가 보장합니다.

2.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It was when curiosity about Gatsby was at its highest that the **lights in his house failed** to go on one Saturday night—and, as obscurely as it had begun, his career as Trimalchio was over.

개츠비에 대한 호기심이 절정에 달했을 때, 어느 토요일 밤 그의 집에 불이 켜지지 않았다—그리고 그토록 모호하게 시작되었듯이, 트리말키오로서의 그의 경력도 끝이 났다.

the lights in his house ← 복합 주어

failed to go on ← 동사구

"his house"가 "lights"를 수식하지만, 문법적 주어는 "lights"입니다. 한국어라면 "그의 집 불이 켜지지 않았다"로 자연스럽게 처리되지만, 영어는 주어와 동사의 **수 일치**를 엄격하게 지킵니다.

lights(복수) + failed(복수 동사) — 단수였다면 light fails 가 됩니다.

Fitzgerald가 "lights"(복수)를 쓴 이유: Gatsby의 집은 **여러 개의 불**로 화려했습니다. 그 모든 불이 한꺼번에 꺼진 것 — 단순한 정전이 아니라 **시대의 종료**를 상징합니다. 복수형이 그 웅장함과 몰락의 규모를 동시에 담습니다.

3. 도치 (Inversion)

So engrossed was she that she had no consciousness of being observed, and one emotion after another crept into her face like objects into a slowly developing picture.

그녀는 너무나 몰입해 있어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고, 천천히 현상되는 사진 속으로 사물들이 나타나듯 하나씩 하나씩 감정들이 그녀의 얼굴에 스며들었다.

일반 어순: She was so engrossed

도치 어순: So engrossed was she

"So + 형용사"가 문장 앞으로 나오면 **주어와 동사가 뒤바뀝니다**. 이것은 강조를 위한 도치입니다.

한국어에서는 "너무나 몰입해 있어서"로 자연스럽게 강조되지만, 영어는 어순을 바꿔서 같은 효과를 냅니다. 평범한 **She was so engrossed** 와 **So engrossed was she** 는 **강도가** 다릅니다.

작가가 도치를 쓴 이유: 그녀의 몰입 상태가 **극도**였다는 점을 문법 구조로 보여줍니다. 도치된 어순 자체가 "비정상적인" 느낌을 주어, 그녀의 비정상적인 집중 상태와 호응합니다.

4. 관계사 (Relative Clause)

Her expression was curiously familiar—it was an expression I had often seen on women’s faces, but on Myrtle Wilson’s face it seemed purposeless and inexplicable until I realized that her eyes, wide with jealous terror, were fixed not on Tom, but on Jordan Baker, **whom she took to be his wife.**

그녀의 표정은 묘하게 낯익었다—여자들의 얼굴에서 자주 보았던 표정이었지만, 머틀 윌슨의 얼굴에서는 목적도 설명도 없어 보였다. 그러다가 질투와 공포로 크게 뜬 그녀의 눈이 톰이 아니라 조던 베이커를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조던을 톰의 아내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Jordan Baker, whom she took to be his wife

↑

관계대명사 목적격

whom 은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입니다. "그녀가 조던을 톰의 아내로 여겼다"에서 조던이 "여기다"의 대상이므로 목적격을 씁니다.

현대 영어에서는 **who** 를 쓰는 경우가 많지만, 문학에서는 여전히 **whom** 을 지킵니다. 특히 이 문장에서 **whom** 은 **오해** 를 나타냅니다 — 머틀이 조던의 정체를 잘못 파악했다는 것.

한국어 "~을/를"과 비슷한 역할이지만, 영어는 관계대명사에서도 격변화를 유지합니다. **whom she took to be** 에서 **whom** 이 **took** 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것이 형태로 드러납니다.

5.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I picked it up with a weary bend and handed it back to her, holding it **at arm’s length and by the extreme tip of the corners** to indicate that I had no designs upon it—but everyone near by, including the woman, suspected me just the same.

나는 지친 몸을 구부려 그것을 주워 그녀에게 돌려주었는데, 팔을 쭉 뻗고 모서리 끝만 잡아서 내가 그것에 대해 어떤 욕심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지만, 그 여자를 포함해 근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나를 의심했다.

at arm's length and by the extreme tip of the corners

↑

↑

전치사구

전치사구

두 개의 전치사구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팔을 쪽 뺏아서" + "모서리 끝만 잡아서" — 둘 다 "어떻게 잡았는가"를 설명합니다.

한국어에서는 "~해서 그리고 ~해서"보다는 "~하고 ~해서"가 자연스럽습니다. 영어는 **and**로 명시적으로 연결하면서도 **리듬**을 만듭니다.

작가가 이 병렬구조를 쓴 이유: 화자의 **과도한 조심성**을 보여줍니다. 하나의 방법으로도 충분한데 두 가지를 동시에 쓴다 — 이 중복 자체가 코믹한 효과를 냅니다. 문법 구조가 캐릭터의 심리를 반영합니다.

제 8 장

1. 분사구문 (Participial Construction)

He didn't like to go into the garage, because the work bench was stained **where the body had been lying**, so he moved uncomfortably around the office—he knew every object in it before morning—and from time to time sat down beside Wilson trying to keep him more quiet.

그는 차고로 들어가기를 꺼렸다. 시체가 놓여 있던 작업대에 얼룩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사무실을 불편하게 돌아다녔다—새벽이 되기 전에 그곳의 모든 물건을 다 알게 되었다—그리고 때때로 윌슨 옆에 앉아서 그를 좀 더 조용히 시키려고 애썼다.

where the body had been lying

↑ ↑

관계부사 과거완료진행

had been lying 은 과거완료진행형입니다. 단순히 "놓여 있었다"가 아니라 "계속 놓여 있던 상태였다"를 의미합니다.

한국어에서는 "시체가 놓여 있던 곳"으로 번역되지만, 영어의 과거완료진행은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시체가 그 자리에 한동안 계속 있었다는 뉘앙스가 문법에 박혀 있습니다.

작가가 단순히 **had lain** 이 아니라 **had been lying** 을 선택한 이유는 — 그 끔찍한 상황이 **지속되었던** 시간을 독자가 느끼게 하려는 것입니다. 죽음의 흔적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시간 속에 스며든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2. 시제 (Complex Tense)

He believed that Mrs. Wilson **had been running** away from her husband, rather than trying to stop any particular car.

그는 윌슨 부인이 특정한 차를 세우려 한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서 도망치려 했던 것이라고 믿었다.

had been running away

↑

과거완료진행 - 그 순간까지 계속 진행되던 행동

과거완료진행형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도망쳤다"가 아니라 "도망치는 중이었다"입니다.

한국어 번역에서는 "도망치려 했던"으로 의도를 표현하지만, 영어 원문은 **진행 중인 행동**을 강조합니다. 윌슨 부인이 죽는 순간까지 계속 도망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running away 와 **trying to stop** 의 대조도 중요합니다. 하나는 지속적 행동(진행형), 다른 하나는 순간적 시도(부정사). 문법이 그녀의 진짜 의도를 드러냅니다.

3. 가정법 (Subjunctive)

He left feeling **that if he had searched harder, he might have found her—that he was leaving her behind.**

그는 더 열심히 찾았다면 그녀를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녀를 뒤에 남겨두고 떠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안고 그곳을 떠났다.

if he had searched harder, he might have found her

↑

↑

가정법 과거완료

가정법 과거완료

(조건)

(결과)

전형적인 가정법 과거완료 구조입니다. "만약 더 열심히 찾았다면,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 하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찾지 않았고,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어에서는 "~았다면 ... ~았을 것이다"로 표현되지만, 영어는 시제를 과거로 한 단계 더 밀어서 **현실과의 거리**를 만듭니다. 이 거리감이 후회와 아쉬움을 전달합니다.

he was leaving her behind 는 현재진행형으로 돌아옵니다 — 가정법의 비현실에서 현재의 감정으로. 시제 변화가 감정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4.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The **shadow of a tree fell** abruptly across the dew and ghostly birds began to sing among the blue leaves.

나무 그림자가 이슬 위로 갑자기 떨어지고 유령 같은 새들이 푸른 잎사귀 사이에서 노래하기 시작했다.

The shadow of a tree fell

↑

↑

단수 주어

단수 동사

"나무의 그림자"는 복잡해 보이지만 주어는 **shadow** 하나입니다. **of a tree** 는 전치사구로 주어가 아닙니다.

한국어에서는 "나무 그림자가"로 자연스럽게 단수 취급하지만, 영어 학습자들은 종종 **of a tree** 때문에 헷갈립니다. 핵심은 **주어의 핵심어**를 찾는 것입니다.

shadow (단수) → **fell** (단수 동사). 전치사구는 주어를 수식할 뿐, 동사의 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문학에서는 이런 긴 주어가 자주 나오므로 핵심어를 찾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5. 관계사 (Relative Clause)

Thus far there was no difficulty in accounting for his time—there were boys who had seen a man "acting sort of crazy," and motorists **at whom he stared oddly from the side of the road.**

여기까지는 그의 시간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어떤 남자가 "좀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본 소년들이 있었고, 길가에서 그가 이상하게 쳐다본 운전자들도 있었다.

motorists at whom he stared oddly

↑

전치사 + whom

stare at someone → motorists at whom he stared

관계대명사 **whom** 앞에 전치사 **at** 이 붙었습니다. 원래 문장은 "he stared at motorists oddly"인데, 이것을 관계절로 만들면서 전치사가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한국어에서는 "그가 이상하게 쳐다본 운전자들"로 간단하지만, 영어는 전치사의 위치가 문제입니다. **whom he stared at oddly**도 가능하지만, 문어체에서는 전치사를 앞에 두는 것이 격식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문학에서 자주 나옵니다 — **the house in which he lived**, **the reason for which he came** 등.

제 9 장

1. 수 일치 (Subject-Verb Agreement)

When Michaelis's testimony at the inquest brought to light Wilson's suspicions of his wife I thought the whole tale would shortly be served up in racy pasquinade—but **Catherine, who might have said anything, didn't say** a word.

심문에서 미카엘리스의 증언이 아내에 대한 윌슨의 의혹을 드러냈을 때, 나는 이 모든 이야기가 곧 자극적인 풍자문으로 각색되리라 생각했다—하지만 무엇이든 말할 수 있었던 캐서린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Catherine, who might have said anything, didn't say a word

여기서 **who might have said anything**는 삽입절입니다. 주어 **Catherine**과 동사 **didn't say** 사이에 끼워넣어진 것입니다.

Catherine [who might have said anything] didn't say a word

주어 [삽입절: 추가 정보] 동사구

한국어에서는 "무엇이든 말할 수 있었던 캐서린은"처럼 관형절이 주어를 수식합니다. 영어는 주어 뒤에 삽입절을 넣어서 **긴장감**을 만듭니다. 독자는 Catherine이 뭘 했는지 알기 위해 삽입절을 지나야 합니다.

might have said는 과거의 가능성입니다. "말할 수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안 했다)" — 이것이 **didn't say**와 대조를 이룹니다. Fitzgerald가 삽입절로 이 대조를 강조한 것입니다.

2. 관계사 (Relative Clause)

After that I felt a certain shame for Gatsby—one gentleman **to whom I telephoned** implied that he had got what he deserved.

그 후 나는 개츠비에 대해 어떤 부끄러움을 느꼈다—내가 전화를 건 신사 중 한 명은 개츠비가 마땅히 받을 일을 당했다고 암시했다.

one gentleman to whom I telephoned

여기서 **whom**은 전치사 **to**의 목적어입니다. 원래 문장은 "I telephoned **to** one gentleman"이었는데, 관계절로 바뀌면서 **to whom**이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원래: I telephoned to him

관계절: to whom I telephoned

한국어에서는 "내가 전화를 건 신사"처럼 단순합니다. 영어는 전치사를 관계대명사와 함께 앞으로 끌고 나와야 합니다.

to whom vs **who I telephoned to** — 둘 다 가능하지만, Fitzgerald는 격식체 **to whom**을 선택했습니다. 1920년대 상류층 화자의 품격을 보여주는 문체적 선택입니다.

3.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She showed a surprising amount of character about it too—looked at the coroner with determined eyes under that corrected brow of hers, and swore that her sister had never seen Gatsby, that her sister **was completely happy with her husband, that her sister had been into no mischief whatever.**

그녀는 이 일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의연함을 보였다—교정한 눈썹 아래 단호한 눈으로 검사관을 바라보며, 언니는 개츠비를 본 적이 없다고, 언니는 남편과 완전히 행복했다고, 언니는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맹세했다.

that her sister was completely happy..., that her sister had been into no mischief

swore 다음에 세 개의 **that** 절이 병렬로 연결됩니다:

```
swore that her sister had never seen Gatsby,  
  
that her sister was completely happy with her husband,  
  
that her sister had been into no mischief whatever
```

한국어에서는 "~라고, ~라고, ~라고 맹세했다"처럼 어미 반복으로 병렬을 만듭니다. 영어는 **that** 을 반복해서 같은 효과를 냅니다.

Fitzgerald가 세 번의 **that** 을 쓴 이유: Catherine의 **필사적인 부정**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하나씩 쌓아올리는 부정들이 오히려 의심을 키웁니다. 문법적 반복이 심리적 긴장을 전달합니다.

4. 도치 (Inversion)

In the foreground four solemn men in dress suits are walking along the sidewalk with a stretcher **on which lies a drunken woman** in a white evening dress.

전경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네 명의 엄숙한 남자들이 들것을 들고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들것 위에는 하얀 이브닝드레스를 입은 술 취한 여자가 누워 있다.

on which lies a drunken woman

이것은 **도치(inversion)**입니다. 정상 어순은 "a drunken woman lies on which"이지만, 관계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on which lies a drunken woman"이 됩니다.

정상: A woman lies on the stretcher

도치: on which lies a drunken woman

한국어에서는 "들것 위에는 여자가 누워 있다"처럼 자연스럽게 됩니다. 영어는 전치사구가 앞에 오면 주어와 동사가 뒤바뀝니다.

여기서 도치는 **시각적 효과**를 만듭니다. "on which lies" — 독자의 시선이 들것 위로 올라가서 누워있는 여자를 발견하는 순서입니다. 문법이 시선의 움직임을 따라갑니다.

5. 수동태 (Passive Voice)

There was one thing to be done before I left, an awkward, unpleasant thing that perhaps **had better have been let** alone.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어색하고 불쾌한 일로서 차라리 그냥 두었더라면 좋았을 일이었다.

had better have been let alone

이것은 복잡한 구조입니다:

had better have been let alone

| | | | |

| | | | └─ 과거분사 (수동태)

| | | └─ be동사 (수동태)

| | └─ have (완료)

| └─ better (비교급)

└─ had (가정법)

"차라리 그냥 두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 한국어로는 한 번에 표현되지만, 영어는 여러 층을 쌓습니다.

had better = 조언/후회의 뉘앙스

have been = 완료된 상태

let alone = 그냥 두다 (수동태)

화자는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 과거완료 가정법이 이 후회를 문법에 새겨넣습니다.